

# 경상북도, 대학생 해외인턴사업 강화 앞장

### 도내 대학생 해외 진출 디딤돌 역할 기대

경상북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대학생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해 해외 청년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은 2010년부터 경북도와 해외자원위원 기업, 도내 대학이 꾸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북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해외자원위원의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은 신청자격에 적합한 학생 선발·추천해 도내 대학생들이 해외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해외인턴사업의 대상은, 도내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이며, 30세 미만으로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구사 능자, 기업체 요구 인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이다. 해외 현지 기업체의 인턴수요(전공, 자격사항 등)에 맞추어 학교의 추천을 통해 어학능력, 해외근무의지 등 엄격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경북도는 도내 대학 추적으로 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은 비자 발급



등의 파견 준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기업 및 학생 해외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항공료와 실손보험료 지원과 해외자원위원과 해당기업을 통한 문화체험 활동, 어학교육 등의 현지적응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대학생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해외자원위주, 시장개척,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54개국에서 활동 중인 경상북도 해외자원위원이 운영하는 기업과 연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0개국에 300여명의 해외인턴을 파견한 바 있다.

## 경북 교육 소식



### 어린이들의 녹색생활 실천

#### 김천 직지초, 찾아가는 기후변화 체험교실

직지초등학교(교장 김종환)는 6월 29일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2017 찾아가는 기후변화 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가 주관하여 환경실천연합회 등에서 어린이들의 기후변화 이해 및 녹색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직지초는 초등학교 49명과 유치원 10명, 전체 59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환경실천연합회의 전문 강사 이수경 강사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사례를 알려주었다.

체험위주의 3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첫 번째로 약 30분간 진행된 인형극은 열소, 사냥꾼, 돼지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인공으로 구성되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 아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했다.

이어서 조목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체험활동으로 '나만의 손부채 만들기'와 '나만의 수경식물 심기'가 진행되었다. 천연 가습기까지 공기정화능 도유하는 개운죽 화분 만들기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음편만 아니라 생명존중의 마음 또한 길러주었다.

회합의 끝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다짐을 적음으로써 아이들이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후변화 체험교실에서는 딱딱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는 아이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기후변화 체험교실에 참가한 3학년 유예든 학생은 "요즘 환경이 오염되어서 동물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형극을 통해서 보니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재활용품 구매, 배수, 쓰레기 버리지 않기, 나무 심기, 에너지 절약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5학년 박찬주 학생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체험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정부공모사업 선정

### 영양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사업 선정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영양군의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의 불균형과 지역 간 삶의 질 양극화 개선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을 발굴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70개 지자체가 신청해 총 9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양군의 '인구지킴이 민

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사업'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각하고 인구수가 내륙에서 최하위를 나타내는 등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단기간에 소멸할 위험이 큰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양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으로 핵심동력을 확보하고,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부·주거지 공동육성 안전체임을 실현하는 등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구 2만 명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저출산 극복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의

성군의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받은 바 있어 저출산 극복, 인구감소 분야 등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저출산 문제가 한계수준에 도달한 만큼, 그동안의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역맞춤형 보육환경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는 한편, 현재 도의 핵심시책인 사람친화과연, 일취월장 프로젝트, 귀농귀촌지원, 4차산업 등 다양한 일터정책들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 2017년 다문화가족 여름캠프

고령군(군수 박용환)이 주최하고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장 성원환)에서 주관하는 '2017년 다문화가족 여름캠프' 행사를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다문화가족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더케이호텔)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 67가족 220여명이 동글, 토이빌리지체험과 볼링, 캄페, 인양인 등을 견학하여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평소 소망하던 볼링, 캄페, 인양인 등을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며 정보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박용환 군수는 "이번 캠프가 자녀와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다문화가족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앞으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폭염 말벌급증! 벌쏘임 주의보

### 벌집제거 출동 전년대비 13%증가, 하루평균 30회 출동

경상북도는 최근 폭염으로 119에 벌집제거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벌 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월부터 6월까지 벌집제거 벌집제거 출동 횟수를 집계한 결과 826건으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했고, 특히 6월부터는 하루 평균 30건 출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본부는 벌 쏘임 환자도 급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벌 쏘임 방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

하고 나섰다.

보통 119에 걸려오는 벌집제거 출동은 폭염이 시작되는 7월에서 9월까지 집중됐으나, 올해는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찍 벌쏘임 사고가 증가했다. 올해도 전년대비 같이 공격성이 강한 말벌, 땅벌 등이 출몰해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포항시 기계면에서 60대 남성이 비닐 하우스에서 작업하던 중 말벌에게 머리를 쏘여 전신에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했다.

또한, 6월 3일에는 상주시 사벌면에서 40대 남성이 뒷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중 벌에 쏘여 몸이 붉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출동한 119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는 등 벌 쏘임 환자와 벌집제거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제초작업 등 야외 활동시 주위에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벌은 밤에는 색채에 지극히 민감하며 공격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는 기피적 사용 금지해야 하며 ▲발발은 밝은 색깔보다 검고 어두운색에 더 공격성을 나타내는 습성을 있어, 야외 활동시에는 어두운 걸은 옷을 피해야 한다.

또한, 주위에 벌이 있을줄 알아야 수건을 흔들어 쫓아도 하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만일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벌집 주변에 10m이상 벗어나야 안전하다.

## 학생정신건강지킴이 아이스캔

학생들의 스트레스!!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걱정 등으로 고생하는 학생들! 집중력, 기억력 향상,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 "세계38개국 특허출원" - 아이스캔 슬립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케어제품 시각, 청각 등을 활용한 오감만족, 조용한 효과음, 뇌파, 자연음역과 편안하고 안정적 인 상우의 내재이신. 과학과 감성이 함께하는 아이스캔 콘텐츠내레이션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문제에 탁월한 효과!

각종 무척추염, 두통, 스트레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과학기술로 개편한 최첨단 "아이스캔 슬립"을 사용 경험하십시오! 꼭 꼭 추천합니다.

세계최고 대학병원에서 고가인 임상

1. 학생들의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강화시켜줍니다.  
2. 집중력을 유지시켜 학습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과도한 긴장과 불안한 학생들의 정신집중에 도움을 줍니다.  
4. 모든 정신과 최첨단 두뇌상태를 유지, 안정한 학습을 도와줍니다.  
5.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힐링시켜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안정적인, 안전한, 편안한 힐링 콘텐츠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걱정 등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힐링시켜줍니다.

아이스캔 슬립

TEL.031-482-5127 FAX.031-483-5127